



유가상승 불구, 소비자 신뢰도 개선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2월 28일 컨퍼런스보드는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에 비해 9.3포인트 상승한 70.8을 나타냈으며, 이는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함.
 - 컨퍼런스보드의 6개월 후 경기기대지수는 강한 회복신호로 여겨지는 90에 육박하는 88을 기록하였고, 블룸버그의 소비자지수도 4연재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톰슨 로이터/미시건 대학의 소비자지수도 6개월 연속 상승함.
 - 국제쇼핑센터협회(ICSC)에 따르면 1월 체인점 매출이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, 2월 넷째 주에도 3% 증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 실제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노동시장 회복이 소비자 신뢰도 개선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 또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

- 최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, 휘발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외로 개선되어 나타남.
 - 2월 넷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에 비해 갤런 당 13센트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3.78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이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- 2008년에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 당 3.96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소비심리가 냉각된바 있으나,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 영향을 상쇄함.
 - Credit Suisse의 조너던 배실은 소비자들이 과거와 달리 현재의 휘발유 가격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.

(USA TODAY, 2/28 등)